갬코·제2순환로·총인 질타 예고

오늘 광주시 국감… 어등산·CCTV 등도 도마위 오를 듯

22일 광주시에 대한 제19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3D컨버팅(3차원 입체영상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법인명 갬코) 실패에 대한 추궁을 비롯한 제2순환도로 계약 문제, 총인시설 선정 입찰비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특혜시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지연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스크로 계좌(은행 등 제3자 예탁에 의한 조건부 인출 가능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채 미국측 사업자에게 650만달러를 입금했다가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갬코사업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로까지 확대된 만큼 국회에서도 가장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한 제2순환도로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부터 문제점이 없었는 지 등 따끔한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997~2000년 1816억원을 들여 완공해 개통 3년 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다.

이후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수익보장으로 지난 11년간 1190억원을 예산으로 보전하는 등 지방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의 휴식처를 만들겠다던 약속을 깨고 골프장 단독개장을 승인해준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도 강한 질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당시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테마파크(유원지)와 골프장을 동시 개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가 '돈 되는 사업'인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안을 그대로 수용해 지역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공무원 8명 등 28명이 모두 징역 구형을 받은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 사건도 지적 대상이다.

광주시 공무원과 교수, 업체 간부 등 28명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턴키공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에 참여한 뒤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500만~400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으며, 오는 2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의 불투명한 행정사례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은 광주시 국감을 하루 앞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불투명한 행정으로 각종 범죄예방과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광주시에 설치된 5·18민주화 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행방불명자 관련 심사가 너무 엄격한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구체적 통계 제시 문제점 지적 … '정책국감' 이끌어

■ 국감인물-이용섭

연말 대선으로 김이 빠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행자부장관·건교부장관 등을 지낸 전문 관료 출신이자 재선을 하면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등 당내 최고의 정책통으로 꼽힌다.

때문에 이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질의에 나서면 피감 기관장도 '한 수 배운다'는 태도로 그의 질의를 경청하곤 한다.

상임위를 경제분야에서 교과위로 옮긴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까지 29건의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발표하며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년대계로서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 '과학한국'의 입지를 다시기 위해 구체적인 통계와 실태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적 정책 대안을 제시, '정책국감'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과 관련, 지방대학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대학 4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또 대학장학금 1인당 수혜금액이 학교별로 10배 차이 나고, 국가장학금이 4344명에게 중복지급된 문제점 등 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인하 정책의 허구성을 밝혀내는 한편, 국가예산확보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국가 R&D 투자의 72.1%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는 문제점, KAIST의 논문 실적 문제점, 연구실에 대한 안전부실 등을 지적,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와 전남교육청 국감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감을 실시했으며 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날씨 변화 없다면 26일 오후 발사 유력

■ 나로호 언제 쏘나

나로호 3차 발사가 26~30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성공 여부와 함께 정확한 발사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날씨 변화가 없다면 현재 26일 발사가 가장 유력하며, 최종 발사 시기는 발사 당일 여건 등을 고려해 발사 8시간 전 최종 결정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1일 "관리위원회(22일)와 비행위원회(23일) 등을 개최해 발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며, 변수가 없다면 26일 나로호를 발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통상 로켓 발사를 위해서는 발사 전 8시간 정도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밤샘 작업을 피하기 위해 발사 시간은 오후(3시 30분~7시)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26일 발사 여부는 이날 오전에 확정되며, 여건이 맞지 않으면 27일로 연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7일 발사 여부도 이날 오전에 결정되게 된다.

항우연 관계자는 "현재 26일 발사하는 것이 목표이며, 관리위원회에서도 이같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날씨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사 시기는 26일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로호 발사체의 정보를 수집할 이동형 원격자료 수신장비를 탑재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00t급 경비함정 3002함이 22일 오전 제주항에서 출항한다.

3002함은 오전 9시에 출항, 제주도 남쪽 1700㎞ 해상인 필리핀 동쪽 600㎞ 공해상까지 이동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軍 '임진각 타격' 위협 화력대응 상향

F-15K·KF-16 등 공군 초계전력도 증강

군 당국이 북한의 '삐라 살포시 임진각 타격' 위협에 따라 해당 지역의 화력 대응태세를 상향 조정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1일 "북한의 위협 발언이 알려진 직후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군의 화력 대응태세를 격상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임진각 지역 관할 부대의 K-9 자주포, 155㎜ 견인포 등의 화력대기 전력을 증강하는 한편 F-15K와 KF-16 등 공군 초계전력도 증강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지역부대의 모든 간부를 통신축선상에 대기시켰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3군사령부 대화력지원본부도 대비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는 임진각에서 22일 진행될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 "임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삐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19일 위협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그렇게(북한이 도발) 한다면 그 원점 지역을 완전히 격멸하겠다"면서 "(서부전선의) 1군단 지역에도 이미 경고가 내려갔다. '대비태세 B급'을 하달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가 예고된) 22일에는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는 통일을 꿈꾼다"

김정일 손자 한솔 "할아버지가 독재자인줄 몰랐다"

보스니아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자 김한솔(18)군이 유럽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통일을 꿈꾼다"면서 "언젠가 북한에 돌아가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18일 북한경제를 소개하는 인터넷 전문사이트 '노스코리안이코노미워치(North Korean Economy Watch)'에 따르면 김 군은 유나이티드 월드 칼리지 모스타르 분교(UWCiM)를 방문한 핀란드TV와 인터뷰에서 한국 출신 학생들과 친구가 됐던 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통일과 북한 주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밝혔다.

영어로 진행된 이 인터뷰 영상은 지난 16일 유튜브에 게재됐으며, 동영상에 등장한 김한솔은 작은 귀고리를 한 단정한 용모에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면서 여유 있게 인터뷰에 응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의 아들인 김 군은 "마카오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학교생활을 함께 해나가며 고향 얘기를 하자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깨달았다"면서 "민족을 분단시킨 것은 정치 문제이지만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문화를 가진 친한 친구들이고 함께 여행도 한다. 이는 매우 멋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한에 갈 수 없고 그곳의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게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나는 통일을 꿈꾼다"면서 "내 친구들이 '남한이나 북한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어떤 곳에서 서로 만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내가 가진) 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갈등에 대해 "나는 한쪽 편만 들지 않는다. 남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며 "남한과 북한의 단점과 장점을 바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은 "(북한에 있을 때) 외가에서 자라서 할아버지(김정일)가 독재자인지 몰랐다"라면서 할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과 삼촌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더 큰세상, 깊은 감동의 서비스
다와옥션
www.dawa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전기본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오후 : 저녁7시
(3개월 16주 과정 25만원)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목요특강 : 매주 목요일
오후 : 7시(교육참가시 확인요망)
(교재비포함 수강료는 1-2만원)
과목 : 세무,민법,부동산정책,기타
기본경매외 보수교육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이지공인중개사
팝니다..토지,전답,임야등
* 광주 신가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194P P당390만
* 광주 동구 선교동 벤처단지 입구 ,대지1,014P, 매가21억(4차선대로접)
* 장성 백양사입구 모텔 및 식당(성업중)대800P, 매가18억
* 영광군,읍,자동차정비공장20년간운영,자동차검사장등,매가6억
* 화순 이양면 초방리 임(77,727㎡,23,512평)매가1억
* 광주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1천4백P,2천5백P, 2만P등(각종 공장 및 기타사용 가능)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590P, 중심상업지역 매가24억
* 화순군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대지 210P 매가1억3천만
*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421P,매가3400만
* 장성,삼서면 대곡리,대지526평,매가1억2천만
* 장성 남면 2종주거지역, 전200P,창고,공장,주택등,매가1억
* 함평나산면 초포리,계획관리지역,4천평,,평당6만.
* 영광군 홍농읍 주유소, 대지460평 매가5억
*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입구 주유소,대919㎡, 매가 4억5천만
* 장성군,읍,덕진리 대로변,전답,임야등10,100P, 매가 P당15만
* 광주 오치동 아파트밀집지역내 5층상가,대166P,매가17억
* 전남 화순군 청풍면 축사설치 가능부지 66000㎡ 기획관리지역 도로여건좋음 매가 ㎡당 5000원
구합니다(매수자대기)
* 철강공장부지1~3천평 (담양 대전면부근,8M이상도로접)
* 담양, 봉산면부근 공장부지3천평(대형차량진입가능)
* 소나무 좋은 임야 1만평이상(장성,화순,담양,함평,곡성등)
* 광주시내 수익성있는 상가건물3~18억선
* 전남북일원 새싹재배단지조성부지 1만평이상(6M이상도로접)
* 광주,첨단2지구내 병원신축부지 150평~300평
* 개인소유 저수지 3천평이상
* 전남,전북일원 폐교부지 3천평이상
* 장성,담양,화순,함평등 오리축사부지 가능한 전답 및 임야
* 도로여건 및 경관좋은임야 1만평이상
* 광주권내 씽크대 제조공장 창고 및 공장부지 500평이상
* 원룸 신축부지(광산구 산정동 및 신가,하남,첨단지구등)
* 광주 북구 신안동 중흥동 상업용지 300여평
기타물건다량보유-전화상담바랍니다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 가 임 대
각화동 홈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자연녹지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가 은 공인중개사
급 구
☆전남지역☆
염 전
양어장
(폐염전 포함)
잡종지
즉시
매입가능!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 가(매매)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1,730만원(21억)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707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 두암동7층건물 164평 건물약600평(31억) 임대보증금 약5억 월1,500만원
토 지(매매)
■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흥가능,식당영업중)
■ (상무지구)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번화가 사거리코너)
■ (상무지구)1,980㎡(600평)-평당1,200만원(상무지구) (유흥가능)
■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750만원(시청앞) (회사사옥,오피스텔등 적합)
■ (동림지구)준주거지 운암~하남 간대로변)4,470㎡(약1,352평) - 평당330만 (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 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돔 감자탕 1층)